

WATER
FOR
FUTURE



남한강변 중원지방의 고려·조선시대 유적



오순제 |
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
osj6680@hanmail.net

1. 고려와 조선시대의 중원지방

삼국중에서 가장 나중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신라는 진흥왕의 북진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차지하고 북쪽에는 고구려의 후예가 세운

발해가 건국되었던 남북조시대 당시에 후기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이라는 부수도를 김해에는 금관경, 남원에는 남원경, 청주에는 서원경, 원주에는 북원경, 충주에는 중원경 등을 두었는데 그중에서도 충주지역이 그들의 영토에 중앙에 해당됨으로 이곳에 중원경을 두었다.

그리고 경주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상주에 도착한 후 문경을 거쳐 소백산맥의 현재 하늘재인 계림령을 넘어 충주에 도착한 후 남한강을 타고 서울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루트는 낙동강과 한강을 이용한 것으로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고려는 고구려를 잇는다고 표방함으로써 고구려의 수도였던



그림 1. 고려시대의 충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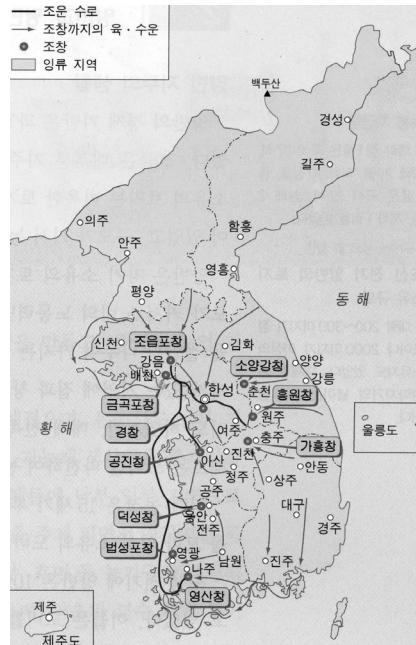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시대의 조운

평양에 서경을 두어 중요시 여겼고, 백제의 수도였던 서울에 남경을 두었으며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동경을 설치해 서경→개경→남경→동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중요한 간선도로였는데 이것 또한 낙동강과 한강을 이용한 수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때에 압록강과 두만강지역까지 진출함에 따라 영남지역의 끝인 부산에서 낙동강의 물길을 따라가다 상주에서 내려 문경을 지나 소백산맥의 조령을 넘어 충주에 이르러 남한강을 따라 한양으로 왔으며 이곳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다니게 되었다. 이당시에는 하늘재에서 조령으로 통로만 바뀌었을 뿐 낙동강과 한강의 물길은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2. 고려시대의 중원문화

① 중원 미륵사지

남한강을 배를 타고 상류로 가다가 청풍에서 내려 월악산계곡을 따라 올라 하늘재를 넘던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 초기의 석굴사원 터로서 이 절터는 발굴조사한 결과 세면을 거대한 돌로 쌓은 뒤 나무로 전실을 만들었음을 알수있다. 현재는 본존불인 석불입상이 남있었고 석굴벽에는 조각한 여래좌상, 삼불좌상 등이 남아있다.



그림 3. 중원미륵사지

그리고 절터에는 신라양식의 5층석탑과 석등이 남아있으며 발굴된 명문와편에는 ‘미륵당(彌勒堂)’ ‘미륵당혁(彌勒堂革)’ ‘원주(院主)’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곳은 사찰 뿐만아니라 하늘재를 넘는 여행자들이 산속에서 도둑이나 짐승을 피해 잠을 청했던 숙소인 원(院)이 있었는데 이러한 원은 이태원, 다락원, 인덕원, 장호원 등과 같이 전국에 남아있다. 고려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원은 미륵대원(彌勒大院)으로 매우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 남아있는 전설로는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가 나라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입산하러 가던 길에 누이인 덕주공주(德周公主)는 월악산 덕주사를 창건하여 남향한 월악산 정상 암벽에 마애불을 조성하였고, 마의태자는 이곳에 절을 만들어 이곳의 부처님이 북쪽인 덕주사마애불을 바라보게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② 덕주사마애불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의 월악산에 위치한 덕주사 법당지의 동쪽 암벽에 부조되어 있는 높이 13m의 고려시대 마애불입상이다. 이 마애불상의 양 어깨 위에는 목조로 만든 전실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얼굴 부분은 약간 도드라지게 조각되었으나 두 손이나 신체 표현 및 법의의 옷주름 등은 선으로 간략하게



그림 4. 덕주사마애불상

처리되어 있다. 길고 턱이 진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목부분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오른손은 엄지와 가운데손가락이 맞대어 있고 왼손은 손등이 밖으로 향해 있어 아미타불의 구품인

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옷의 형태는 통견(通肩)의 법의가 양 다리 위로 갈라져 표현된 형태로 통일신라시대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석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식으로 이 마애불상이 넓적한 얼굴에 볼륨감이 거의 없는 평면적인 신체표현이나 도식화된 옷주름 등의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마애석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신라말 마의태자의 여동생인 덕주공주가 이 불상을 조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③ 덕주산성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의 월악산의 남쪽 기슭에 있는 상덕주사를 중심으로 그 외곽을 여러겹으로 돌로 둘러쌓은 산성으로 내성과 중성, 하성, 외곽성 등 4겹으로 이루어진 큰 성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둘레는 약 4000m이며 석축과 토축의 혼합 형식으로 현재는 거의 무너졌으나 조선시대에 쌓은 남문·동문·북문 등이 남아있다. 이곳은 광천(廣川)이라는 하천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문경과 충주를 잇는 도로를 차단하는 전략적 요새지로서 험준한 산 능선과 암벽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성벽은 2m 정도의 높이로 쌓았다.

이 산성은 신라의 마지막왕인 경순왕의 큰딸 덕주공주가 피난하였던 곳이라고 전해오며, 1256년(고종 43)에는 몽고병이 충주를 공략하고 이곳으로 진격하자 관리들과 노약자들이 이 산성으로 피신하였는데 갑자기 구름·바람·우뢰·비·우박이 쏟아지므로 적병



그림 5. 덕주산성

들은 신이 돕는 땅이라 하여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 조선 말 명성황후가 흥선대원군과의 권력 암투에서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은신처를 마련하려고 이곳에 성문을 축조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산성이 축조된 이후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중시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④ 사자빈신사지석탑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 계곡의 하천변 대지 위의 사자빈신사지에 있는 고려시대 석탑으로 높이는 450cm이다. 하층기단부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원래 9층 석탑으로 1022년(현종 13)에 건립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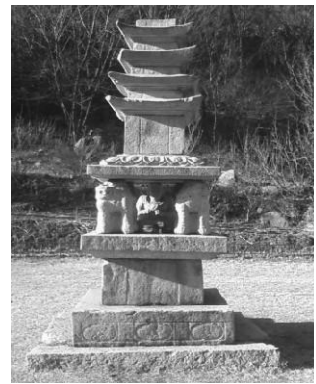


그림 6. 사자빈신사지석탑

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는 2층 기단에 5층의 지붕돌까지만 남아 있고 상륜부는 완전히 파손되었다. 기단은 2 층으로 구성되었는데 하층기단의 각 면에는 모서리 기둥모양만 표현되어 있고, 남쪽 면돌에는 해서로 10행 79자의 조탑기가 새겨져 있다. 감석은 1개의 돌로 윗면은 편평하나 밑은 약간 안쪽으로 파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상층기단은 네 모퉁이에 각각 사자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두건을 쓰고 지권인 모양의 손모양을 한 불상이 하나 안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이한 형식의 탑은 통일신라시대의 화엄사 사사자3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고려시대의 흥천 괘석리 사사자3층석탑이나 금강산 금강암지 사사자3층석탑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상층기단의 감석도 마찬가지로 1개의 돌로 만들어졌으나 윗면에는 옆드러진 연꽃모양의 복련을 조각하여 탑신석을 받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탑신석은 옥신석과 지붕돌인 옥개석이 각각 1개의 돌로 구성되었는데

초층 옥신이 다른 옥신석에 비해 유난히 높은 편이다. 옥신석에는 각 면에 우주를 새겼으며, 옥개석 받침은 모두 3단으로 되어 있고, 처마 끝부분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모습이다. 이 탑은 세부장식·결구방식·조각수법 등에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특이한 형식의 석탑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⑤ 대림산성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의 달천강(達川江) 변의 높은 산에 자리잡은 대림산성은 자연 능선을 활용하여 축조한 계곡을 감싸안고 있는 둘레 4906m의 전형적인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이다.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특히 경사가 급하고 곳곳에 암벽이 형성된 천연의 요새로서 서쪽으로는 국도가 지나고 동쪽으로는 발터재를 접하고 있어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을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매우 유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동쪽 발터재쪽으로는 능선이 동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원 성벽에서 확장하여 외성처럼 길게 성벽을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접근이 쉬운 방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서문지 부근과 남문지 부근, 동문지 부근에는 2중 3중의 방어벽을 별도로 설치하여 산성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림산성은 달리 굴곡이 심한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능선이 돌아가는 지점은 능선을 따라 성벽을 길게 돌출시킴으로써 자연적인 치의 역할 및 방어에 필요한 조망을 용이하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림 7. 달천강변의 대림산성

보아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서문지 부근은 양쪽 능선이 입구를 길게 좁히며 뻗어 있고 입구에서 성문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길고 곳곳에 방어시설을 설치하여 마치 웅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토석혼축이 부분별로 남아 있으며 성내에 다수 우물지, 건물지, 문지 등이 남아 있으며 정상부에는 봉수지가 있다. 지표조사 시 기와류, 토기, 자기류가 수습되었으며 성내에는 창고도 있었던 듯 현재 이곳의 자연부락명이 '창골'이라 불리우고 있고 인근에 기와류 및 절터 등이 산재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산성 정상부나 건물지 등에서 발견되는 토기 조각이나 자기 조각들은 대체로 고려시대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산성의 중심시기는 고려시대임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림산성은 고려시대 대몽항쟁기의 '충주성 전투'와 관련된 산성으로 대림산성 내에서 확인된 '중주바위' 등의 전설, 70일간 전투를 벌일 수 있을 정도의 먹는 물의 양과 넓은 성의 면적 등을 통해 대림산성을 고려시대 대몽 항쟁의 중심이었던 충주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3. 조선시대의 중원문화

① 가흥창지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남한강변의 목계나루 부근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조창으로 원주의 흥원창, 춘천의 소양강창과 더불어 세금으로 거둔 곡식인 세곡을 운반하는 참운의 좌수참에 속하여 좌수참창이라고도 하였으며 1465년(세조 11)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덕흥창(德興倉)이라 하다가 조선 건국 초 경원창(慶源倉)으로 개칭하였고 세종 때 다시 덕흥창이라 하다가 세조 때 조창 자리를 가흥역 근처로 옮기고 가흥창(可興倉)이라 하였다. 또 각지에서 수집한 세곡을 야적하였던 것을 1521년(중종 16)에야 70칸 규모의 창고를 지었다. 가흥창의 관할구역은 경



그림 8. 남한강변 목계나루 부근의 가흥창지

상도의 각 읍과 충청도의 충주·음성·괴산·보은·단양·영춘·제천·진천·황간·영동·청풍·청산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곡을 이곳에 모았다가 남한강 수로를 통해 조선조의 수도였던 한양의 서울 용산창으로 운송되었다.

② 조령관문

백두대간의 조령산(鳥嶺山) 산마루를 넘는 이 재는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유역을 잇는 영남대로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로 인적, 물적자원의 유통과 국방상으로 요충지였다.

새재(鳥嶺)란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지만, 옛 문헌에 초점(草岾)이라하였는데 이것은 '억새풀이 우거진 고개'라는 뜻이다. 새재란 하늘재와 이화령 사이에 있는 고개라는 뜻의 '사이재'가 '새재'가 되어 한자로 바뀌면서 새조자의 조령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조선시대에 새(新)로 된 고개의 '새(新)재'로 바뀌었다고도 한다. 임진왜란 뒤에 이곳에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 등 3개의 관문을 설치하였다.



그림 9. 소백산맥을 넘어 영남으로 통했던 조령관문

③ 탄금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 왜군이 파죽의 기세로 진격해 오자 신립장군은 도순변사로 임명되어 부장 김여물과 함께 80여 명의 군관과 시정백도 수백명을 모병하여 충주로 남하 왜적을 막고자 하였다. 그는 부장 김여물 등이 조령(鳥嶺)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방어하기를 권하였으나 충주의 서북지역에 있는 탄금



그림 10. 신립장군이 전사한 열두대

대에서 남한강을 뒤로 둔 배수진을 치고 기병을 이용한 정면 전투를 전개하였다가 소서행장(小西行長)을 선두로 한 왜군의 대대적인 공격 앞에 중과부적으로 패배하여 물속에 투신하였다. 그는 조령에서 전투를 할 경우 겁을 먹은 오합지졸들이 달아날까봐 결사항쟁을 하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고도 한다.

4. 맺음말

남한강을 끼고 있는 중원지방은 고대로부터 인적, 물적자원을 태백산과 소백산을 잇는 백두대간인 소백산맥을 넘어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을 이어주는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염없이 흐르는 강을 따라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강물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적들이 분포되어있는 강변을 잘 보호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